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문 활짝

만성지구에서 개소식... 송 지사 "문화콘텐츠산업 전문 육성 거점 될 것"

전북도가 지난해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2일 만성지구에서 송하진 도지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했다.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간 협업과 청년 콘텐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 시설 구축으로 콘텐츠분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규모는 부지 1,693㎡, 연면적 6,332㎡ (지하 1층, 지상 5층) / 총사업비 123억이다.

도는 문화유산4.0 기반 지역특화콘텐츠와 4차 산업 혁명의 첨단기술(6G, 빅데이터, AI, VR, AR 등)을 접목하여 관광콘텐츠 등 융합콘텐츠 개발을 특화 분야로 발굴하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 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콘텐츠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 기업은 지난 1월부터 모집, 그 결과 인포커스 등 17개 업체가 4월초 입주,

점차적으로 청년스타트업을 연 10개 육성, 문화유산분야 신규 일자리창출 150여개 등 콘텐츠 융복합 문화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콘텐츠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가는 거점기관이 될 것이며, 문화콘텐츠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 놓여준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전북도는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8년도 놓여준주택개량사업으로 780여명의 주택개량대상자를 확보하여 1,349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한다.

2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66등을 선정하고 나머지 283등에 대하여 5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놓여준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 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원을 연 2%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에 대하여 최대 7,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절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놓여준 주택개량사업은 놓여준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으로 주거복지 실현하고 정주여건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내 놓여준과 전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디자인산업 컨트롤타워 오픈

전북디자인센터 개관... 도내 중기 역량강화 위해 150억원 투자

전북도는 12일 전북디자인센터에서 송하진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귀금속 디자인관련 기업 및 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기념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전북디자인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이다.

또한 대지면적 1만2,734㎡, 연면적 8,507㎡으로 디자인동 (4,968㎡, 3층)과 기업입주동(3,539㎡, 26개실) 2개 건물이 연결되어 복합창의공간, 연구실, 교육장, 실습실, 회의실 등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총사업비는 221억원이 투입됐다.

디자인산업은 일반 R&D투자대비 3배의 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 분야에 2배의 증대를 일으키는 산업으로, 전라북도도 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관련 시설, 예산 등을 집적화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집중

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센터를 설립한 만큼 귀금속 보석산업을 전북의 대표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방침이다.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귀금속 및 디자인 기업 입주, 장비 구축,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디자인 공모전 출품지원, 디자인 전람회 개최, 서비스디자인학회 국제포럼 개최 등 홍보 사업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디자인센터 개관을 통해 우리지역의 통합적 디자인 거점기관이 구축되어 그동안 분산되어 진행해 오던 디자인관련 지원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도내 디자인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디자인센터가 디자인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 우리말 가꿈이' 모집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바른 말과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

우리말 가꿈이들은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이상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우리말·글 사랑을 전하게 된다.

넷과 SNS 등을 통해 우리말·글 사랑을 전하게 된다.

지원 방법은 대학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korean.jackr.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orean5@damura)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근로자건강센터는 12일 이마트 전주점에서 방문 고객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매직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큰 힘 됩니다"

전주시, 판매직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캠페인

전주시가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판매직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나섰다.

시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근로자건강센터는 12일 이마트 전주점에서 방문 고객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원과 고객이 함께 행복한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판매직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정노동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증 등의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

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악성·고질민원 등에 시달리는 전주시 소속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최근 감정노동의 극한에 종사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감정노동 실태개선을 위해 전주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하부기구로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 분과 위원회'를 구성, 정례회의를 통해 콜센터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 하반기 중 상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상담원 권익보호를 위한 업체별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근로자건강센터와 협업을 통해 콜센터 상담원 중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인들로부터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묶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 특수교육진흥원 설립 필요"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아와 특수아들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원 설립과 특수학교 설립, 특수학급 증설 등이 필요하다."고 12



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전북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은 설립되어 있으나, 정작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이 더욱 절실한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원은 설립되지 않아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특수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권 보장과 진로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 전북특수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진흥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 특수교육과정 수립 및 보급,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연수는 물론, 특수학생들의 진로직업 체험교육과 장애체험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특수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복지와 진로를 포함한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학교가 전주를 비롯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무주·진안·장수 등의 소규모 놓여준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